**인간과 기술의 미래에 관한 세가지 질문**

**-미래인가 위기인가?**

**2조-박유빈,김성은,임채현**

**positive future- 한걸음 더 나아가는 인류**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했다.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 힘든일을 모두 인공지능, 로봇 등에게 맡겨서 더욱더 편리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인간의 희생이나 생명의 담보를 걸어야 하는 일 전쟁, 방사능 등등에 로봇이 쓰인다면 모두에게 환영 받을 것이다.

인간이 자연에 이미 뿌려버린 오염이라는 씨앗을 고도의 기술로서 다시 거둬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더 간편해지고 덜 위험해지고 그로써 절약되는 시간과 노동을 더 생산적인 일에 쓸 수가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더 진화하고 영역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력 향상만으로는 이뤄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에 해당하는 국민수준, 교육과 의식수준, 공익을 우선시 하는 모습 민주적인 의식 등등이 그런 것들이다. 기술력 뿐 아니라 이런 뒷받침들이 인류가 함께 해결해야하는 새로운 숙제다. 이것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분명히 밝다.

**Negative future-배보다 더 커진 배꼽**

인공지능을 포함한 신기술들과 함께 하는 미래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동시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는 불안정하고 위험한 사회다.

첫째, 인공지능의 은닉층 (hidden layer)에 대한 우려다. 인공지능도 완벽한 것이 아니고불완전한 인간의 작품이기에 충분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리고 아직 완벽하게 개척되지 않은 인간도 자세히 알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은닉층이다. 자기 자신조차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인간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완벽하게 통제하고 알고 있다고 자신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높은 정확도와 데이터의 분석에 의해서 나오는 논리성 때문에 사람들은 인공지능을 과신해 버려 오류조차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맡겨버린 일은 한번의 실수로 그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한순간에 재앙을 초래할 일이 인간의 부주의함으로 쉽게 일어나고 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의 사회에서 필요한 윤리들, 혹은 감정들을 인공지능은 이해하기 힘들기에 인공지능에게 전부 맡겨버리는 것은 매우 큰 위험이라는 것이다.

영화 아이로봇을 보면 주인공은 딸과 함께 교통사고를 당해 물에 빠졌는데 구출 로봇이 생존확률이 높은 주인공을 구하고 딸은 구하지 않았다. 주인공은 계속해서 딸을 구하라고 말했지만 로봇의 시스템에는 확률이 높은 일을 하는 것이 우선시 되도록 프로그램 되어있기에 주인공을 구한다.

이런 예시는 자동차의 자동운전시스템에서 나타난다. 인간의 조작이 아닌 인공지능의 판단과 조작아래 이루어지는 운전상황에서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생명중 어떤 것을 더 중요시 해야할지에 대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될 수도 있다. 인공지능에게 윤리라는 잣대를 데이터로 입력 할 수가 없기에 인공지능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세상은 오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

세 번째는 인공지능뿐 아니라 모든 미래 기술들 인간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모든 기술들에 대한 문제이다. 이런 기술이 주는 편리함이라는 장점들은 약으로 보이는 독들이다. 과연 몸이 편해지는 게 궁극적으로 좋은 일일까? 모든 것은 사용해야 퇴화 하지 않는다. 먼 미래에 어쩌면 앉아서 생각하는 것만이 일이 되어버려 다른 신체 들이 퇴화 되어버린 인류를 보게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을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을 대체하면 앞으로 인구수는 더 불어날 텐데 인구수와 직업의 수의 균형이 맞지 않게 되어버릴 것이다. 몇 안 되는 직종을 위해 더 전쟁 같은 삶을 살게 될 수 도 있다. 편해지는 게 인간을 망친다. 스마트 폰만 해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예전에 비해 더 시간을 잘 쓰게 되었는지 한번 돌아보자

오히려 스마트폰중독과 sns등에 쓰는 시간이 더 많아졌을 것이다. 몸이 편해지니 게으르게 되는 것이다. 과연 인간은 남는 시간에 더 생산적인 일에 몰두 하게 되는 것 일까? 어쩌면 생산적인 일 자체가 없어져서 못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 그 일은 기계의 몫일 테니까. 미래 기술은 또한 더 극단적인 자본주의를 초래하게 될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과 미래는 뗄 수 없는 관계기 때문에 인공지능 등등이 침해해서는 안되는 인간의 영역을 확실히 정해놓고 그것을 도구의 명목으로만 사용한다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고 인간이 오히려 퇴화하게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